

남전 율장의 가사 계율에 관한 고찰

박 일 록[†]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Kasaya Rule of Southern Vinaya-Pitaka

Iirock Pa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

Abstract

This paper is on the Kasaya that reveals conspicuously the religious meaning among the Korean Buddhist costumes. The Kasaya has the most special meaning among Korean costume culture. It ha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value, for Buddhism is the oldest religion that begins at 4th century A.D.. It has the most unordinary shape that we could not find any other costume culture. It has very important meaning to study on the Kasaya in the religious and cultural history of Korean costume.

We have to study Korean Kasaya from surveying Indian Buddhist Kasaya diachronically. Buddha establishes himself the rules of weaving, coloring and wearing Kasaya. Bunso costume(糞掃衣) is the first shape of Kasaya that he has worn during his ascetic practice. Bunso costume was a kind of shari. It is made with diapers those clean ordure of baby. It symbolizes the life of ascetic practice. However Buddha could not stick to it as the only costume of monks. From his age Buddhist devotees have thought Buddha and monks as sacred beings. So they eagerly want to provide the sacred beings with foods, clothes and other things that samgha(僧伽) need to live and accomplish their duties. At that time there are many kings, aristocracies and rich merchants among the devotees. They often offered them the luxurious silk Kasaya, that the ascetic monks could not wear, to express their deep faith. So the rules of the samgha has been distorted.

The samgha has enlarged day by day as a great huge religious associ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shapes of Kasaya. The Buddhist samgha need to establish a minute and rigid rules of Kasaya to order living of monks and to teach the moral and educational life to ordinary people. That book of rule is Vinaya pitaka(律藏). There are many kinds of Vinaya pitaka. This paper surveys the rules of Kasaya from Southern Vinaya pitaka(南傳律藏). This study will be the basic ground to research the Korean Buddhist Kasaya.

*이 연구는 1999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
344-2 Shinyoung-dong, Iksan-city, Chonbuk, 570-749, Korea
Tel : 063-850-6585, Fax : 063-850-7306

I. 서론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인류의 복식사에서 현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워만 가는 의상과는 정반대로 더럽고 지저분하며 해질수록 더 가치가 있는 복식인 분소의라고 부르는 인도 불교의 가사이다. 특히 가사의 종교적 가치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하고 실천해 온 가사 계율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인생관과는 달리 무소유와 욕망의 제거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하는 불교는 복식에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다. 해져서 못 입게 된 버려진 옷의 조각이나 쓸모 없는 작은 천 조각들을 주워서 봉합하여 만든 가사는 해탈과 열반을 향해 용맹 정진하는 구도자의 정신을 상징하고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데 매우 적합한 복식이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연기설을 통해 실감하게 되는 무아의 자아를 찾아 나선 고행자 즉 사성체와 팔정도를 통해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한 삶인가를 깨닫고 의식을 내면화하여 참다운 자아를 각성하려는 수행자에게는 더럽고 추할수록 아름다운 의상이 된다. 그들이 기꺼이 찾아 만들어 입고자하는 분소의의 어린아이의 변을 닮은 기저귀 조각을 모아 만든 가사인 것이다. 이런 가사에 담겨진 삶의 철학은 욕망 추구의 광란으로 치닫는 현대 문명을 정확할 수 있는 귀중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복식학과 연관된 학자들은 가사가 지닌 고귀한 정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깊은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완수는 그의 '간다라불의교'(최완수, 1973)에서 간다라 불상에 나타나 있는 붓다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각종의 보살들의 의상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전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보조 자료로 하여 붓다 당대의 가사의 형태, 색채, 크기 그리고 특히 착의법에 대해 탁월한 선구적인 업적을 학계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완수의 연구는 불상에 나타나 있는 형상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붓다는 사후 수백년이 지나면서 신격화되고 장엄하게 수식된 붓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가사에 관한 문헌적 고찰(박일록, 1984)을

통해 가사의 정의와 유래, 재료의 종류, 봉합 방법 즉 도신법과 국량법 그리고 가사의 조와 엮에 관해 보고하였다. 또한 앞의 논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가사의 재료와 구성에 대하여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박일록, 1990) 이 외에도 가사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 대부분의 논문은 한국 불교 가사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우리 학계의 관심이 한국 가사에 집중되는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사는 인도 불교의 가사의 원형으로부터 크게 이탈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믿음은 장엄으로부터 나온다는 후기 불교의 포교 원리와 도입시의 정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세속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조건이 함께 하여 그와 같은 왜곡된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 황금 불상, 웅장한 궁궐 같은 사찰, 장엄한 색채의 가사 등은 붓다 본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가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도된다. 초기 인도 불교 승단은 붓다의 가르침이 후대에서 훼손되고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승려들의 생활 규범을 세세한 부분까지 계율화 하여 하나의 경전으로 집대성하였다. 이 경전이 율장이다. 율장의 정신은 분소의를 걸친 수행자의 몸이 청정하게 빛나서 인간 존재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구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율장에 나타나 있는 가사와 연관된 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붓다에 의해 수행자의 복식으로 확정된 가사의 종교 또는 철학적 가치를 지키려는 율장 제정 당시의 신념과 방법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율장의 여러 종류 가운데 가사의 원형적 형태와 구조를 밝혀주고 있는 것은 사분률과 오분률 등의 율장이다. 그러나 승가의 실제 생활 속에서 가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계율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남전율장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자료는 남전 율장이다.

불교의 가사는 바라문교의 바라문이 입서기에 입었던 복식에서 온 것이다. 붓다가 출가 직후에 택한 수행 방법은 바라문의 고행을 따르는 것이었다. 가사의 정신은 바라문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 불교의 가사에 관한 특히 정신적 가치에 대한 모색은 인도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바라문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론의 모두는 인도 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에 집중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율장 제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승가의 성립 과정에 대한 간략한 탐구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율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본격적인 가사 계율의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위에 열거한 전체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남전율장에 있는 모든 가사와 연관된 계율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그 정신적 및 종교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을 본론의 핵심으로 삼고자 한다.

II. 인도 불교 가사의 원형 : 바라문교 수행자의 사리

인도의 문화는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도 민족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베다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베다는 인도 아리안 족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코카서스 지방이 원주지로 추정되는 아리안 족은 기원 전 13세기로 추정되는 이동시기에 이란과 인도로 향하던 아리안 족 중의 한 그룹은 힌두쿠시산맥을 넘어서 서북인도로 들어와 인더스강 상류의 판잡 지방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인도 아리안 족의 조상들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농경 생활을 하였으며 가부장제를 취하고 대가족, 씨족, 부족 사회 등의 사회 조직을 이루고 살았다. 농경 생활은 자연 환경에 지배되는 일이 많으므로 해, 달, 바람, 비, 천둥 등을 신격화하여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자연 종교는 교차신교Kathenotheism라는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Hopkins,1971) 이는 그때그때 힘이 가장 센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교체하면서 기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 혹은 신의 파괴력을 달래주는 찬가를 짓고 부르게 된다. 이 찬가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 베다이다.

아리안들은 후에 판잡보다 기름진 땅을 찾아 동남쪽으로 이주하여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의 중간지대의 평원에 정착하게 된다. 베다는 이곳에서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편집되고 유포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이곳에서 정주하게 된 후 사성제가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사성은 사제자 계급에 속하는 바라문, 왕족인 크샤트리아, 농업과 상업 등에 종사하는 서민 계급인 바이샤, 노예 계급인 수드라로 나뉜다. 바라문 계급은 베다를 소유하고 여러 신에 제사를 거행하는 계급으로

신의 의지 또는 신의 힘을 움직여 인간의 행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왕족과 평민 계급과 바라문은 모두 아리아인이다. 마지막 노예 계급인 수드라는 원주민이다. 이 수드라에게는 베다 성전을 읽거나 듣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성계급이 성립되고 그것에 의한 사회 구성의 조직이 완비되자 성전을 직접 접하고 다루는 바라문의 지위는 신성 불가침의 것이 되고 모든 종교 철학적 원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생활의 규범은 베다에 근거해 바라문에 의해 교시되었다.(Bloomfield, 1988)

기원전 5,6세기 경 인도에서는 도시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도시 국가들은 부타 석가족의 왕국처럼 공화정의 독립된 소국들이었다. 이 시기에 제2의 계급인 크샤트리아 즉 왕족들은 바라문에 저항하고 바라문 사상을 부정하게 된다. 신성시 여겼던 사성 계급의 질서와 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불교가 출현하는 것이다. 불교와 함께 자이나교 역시 이 시기에 나타난다. 두 종교 모두 신흥 세력인 왕족들과 바이샤 계급의 비호와 주도 하에 힘있게 육성되고 번성하게 된다.(Muller, 1966)

그렇다고 하여 전통적인 베다의 사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세적이며 일상 생활의 의례와 규범이 된 베다 종교는 반베다적 종교인 불교의 출현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혁신 사상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 베다로부터 시작된 바라문교는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 梵我一如의 사상이라 불리우는 우파니샤드의 철학이 발전하게 된다. 베다 경전의 해석 작업을 통해 형성된 이 세계관은 잡다한 개별적인 세계의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주체를 범Brahma라고 부르고 각 개인의 내면 속의 그 사람 자체라 할 수 있는 것을 眞我Atman으로 이름짓고 이 둘이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임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진이는 유한한 육체와 죄악적인 감각에 지배되어서 유한한 생사를 반복하고 있으나 감각의 속박을 벗어나 본성 그대로의 범에 귀일한다면 영원의 靜寂 즉 생사를 벗어난 해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 체계에서는 정적, 무형, 정신은 영원, 청정, 평안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동, 유형, 물질은 생사, 부정, 죄악과 결부되는 것으로 의미화 하는 이원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은 불교의 사상 체계의 근저에서도 발견된다.(Conze, 1953) 생존의 현실을 부정하는 모든 종교의 원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는 육신을 버리고 정신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종교적 요구를 낮게 된다. 진아와 범의 일치를 위해서는 현실의 생활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라문은 일생을 넷으로 쪼개어 먼저 梵行期라 하여 소년 시절부터 출가하여 스승을 찾아 계율을 행하며 베다를 배우는 기간을 거쳐 다시 가정 즉 현실로 돌아와 조상 전래의 베다에 따르는 제사, 교육, 그 외의 가업을 행하는 家住期를 거치게 된다. 이 세속에 머무는 기간이 곧 바라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활동기인 셈이다. 이 때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 가계를 이을 수 있게 하고 그가 가업을 잇도록 훈련을 시키는 일이다. 다음의 식기를 林棲期라 부르는 데 이 기간 동안 바라문은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숲에 들어가 종교적 삶에 전념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遊行期를 준비한다. 이 유행기에는 쿤디카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불병 하나, 나무 짓가락, 한 쥬레의 신발, 누비옷 한 벌, 수건 한 장, 그릇 하나, 거포 한 장 이외에는 모두 버리고 생활을 한다. 이 때 바라문들은 단전 아래에 두 손을 맞잡고 혀는 밑알 크기만큼 내밀고 눈은 조금만 뜨고 들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않으며 호흡 소리를 듣는 상태에서 진아가 두개골을 깨뜨리고 불멸자(梵)에게로 이르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平川彰, 1989)

인도의 기원전 5,6세기 경에는 반 바라문의 사회 및 종교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때의 혁신적인 종교인들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은 바라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2계급과 제3계급의 사람들이 출가하여 바라문의 입서기 또는 유행기의 삶의 형태를 따라 옷은 버려진 것을 주워서 입고 먹는 것은 걸식을 하면서 동굴이나 나무 밑에 거처를 정하고 살면서 선정과 고행을 주로 하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사문Sramana이라 불렀다. 붓다도 대사문이라 불렀다. 또 사문이란 명칭은 한 지도자 아래 모여 종교 생활을 하는 집단을 일컫기도 한다. 사문은 바라문에 대립적인 종교인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들 사문 집단에서는 사성계급의 차별이 없었다. 모든

출가자는 동등한 사문으로 평등한 삶을 누렸다. 또한 특이한 것은 붓다가 스스로를 진정한 바라문이라 지칭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사문과 바라문 사이의 관계도 평등한 관계이었다.

이러한 인도의 고대 종교인 바라문교와 붓다의 출가자로서의 초기의 모습과 종교의식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종교의 교리적 원리와 수행 방법에는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입서기와 유행기의 바라문의 의식주의 생활상은 인도의 개혁 종교인들의 삶의 모델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가사의 원형은 이미 바라문의 출가자의 사리에서 발견되는 것이다.(佐藤密雄, 1991)

Ⅲ. 불교 승가의 성립과 율장의 제정

붓다는 기원전 463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석가족 슈도다나Suddhodana왕이 통치하는 카필라 왕국의 태자였다. 그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 몇 사람의 아내를 두었는데 첫째 부인 야소다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라훌라를 낳았다. 이 아들을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아 즉 나이 29세에 처자와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버리고 출가자가 된 것이다. 출가의 동기는 세속 생활의 덧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출가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성문 밖으로 소풍을 나갔는데 처음 동문을 나섰을 때 노인을 만나고 다음에 남을 나섰을 때엔 병자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서문을 나섰을 때는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만나게 되자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무상고를 느끼고 있던 싯달타는 복문으로 나가다가 바라문 수행자를 보게 되자 자신도 출가자가 되기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붓다의 출가 과정과 동기에 대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불경에 자주 등장하는 '태양의 친족인 석가족'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석가족의 강한 종족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인도의 정치적 상황은 도시국가 형태의 소국들이 점차 코살라국과 같은 대국에 지배를 받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왕에서 자부심이 강한 석가족은 나라의 부흥과 대왕국의 건설을 싯달타에게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세의 권력 투쟁에서 소국의 한계를 절감한 소왕국의 태자는 사상

즉 종교의 왕국을 건설함으로 종족의 자긍심을 되찾으려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가능한 세계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우주적 왕국의 건설이라는 응지를 품고 석가모니는 출가를 결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싯달타가 출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카필라 왕국은 코살라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젊은 태자는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라문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사상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던 시대이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계급을 불문하고 출가하여 종교인이 되어 사상적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던 시대인 것이다. 출가자들은 사상적 논쟁을 통해 그 우월성을 다투고 사문 집단을 확장하고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힘을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불교의 경전에 따르면 붓다가 탄생할 때 바라문의 점성가가 '이 아이는 장래에 세계를 지배할 왕(轉輪聖王)이 되던가 아니면 종교적 법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였다 한다. 결국 붓다는 영원한 세계적인 법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길희성, 1984)

싯달타는 출가하여 7년 만에 우벨라의 숲 속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붓다로서의 깨달음을 얻어 성도하였다. 붓다가 된 직후 그는 하나의 중대한 회의를 품게 된다.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쳐도 헛된 일이 아닐까, 헛된 것이라면 설법을 단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회의와 망설임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전에 의하면 인간계를 대표하는 신 범천이 이를 알고 붓다 앞에 나타나 설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먼저 설법을 베풀어주기를 간청하였다 한다. 거듭되는 설법과 전교에 대한 간청을 받고 붓다는 의혹과 망설임을 떨치고 설법을 하고 설교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佐藤密雄, 1991)

그가 우벨라를 떠나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을 할 때 즉 초전법륜을 할 때 그 대상은 교진여, 바파, 발제 등을 포함하는 다섯 비구였다. 붓다를 포함한 여섯 명의 출가자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룬 승가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곧 55인의 비구가 생겨났다. 먼저 바라나시의 한 장자의 아들인 야사에게 설법을 하게 된다. 환락의 세계에 빠져 욕망을 좇던 그는 환락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붓다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게 된다. 붓다는 먼저 그에게 시론, 계론, 생천론을 설하였

다. 이는 바라문교의 교리를 불교적으로 변형한 교설로 보시와 윤리적 생활을 하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업과 윤회의 사상을 설하여 믿게 하였던 것이다. 야사가 붓다의 최초의 설법을 믿게 되자 붓다는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인 사제와 팔정도를 설하였다. 먼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받을 갈아놓고 자신이 깨우친 법을 전하여 진리의 눈 즉 法眼을 뜨게 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친구들이 이어서 붓다의 설법을 듣고 처음에는 5명 다음에는 50명이 비구가 되니 61명의 승가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붓다는 자신을 제외한 60인의 제자들에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전도하라 명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도 홀로 성도 우루벨라로 가서 전도하였다. 그의 목적은 그곳에서 배화교도인 천명을 거느리고 있는 마하가섭 형제를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붓다는 신통력과 설법으로 만형 우루벨라가섭, 둘째 나제 가섭, 셋째 가야 가섭 삼형제를 차례로 개종시켜 비구가 되게 하니 불교 승가는 대교단이 되었다.(평천창, 1989)

붓다는 가섭 세 형제와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다의 수도인 라자그리하(王舍城)으로 갔다.

왕사성은 중인도 최대의 도시로 종교의 중심지였다. 붓다가 성에 도착하자 빔비사라왕은 대신들을 이끌고 나와 크게 환영하였다. 왕사성의 왕은 처음에는 우루벨라 가섭이 붓다인 스승이고 붓다가 제자인 줄 알았다. 이에 가섭이 '붓다가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의 제자이다'고 밝힘으로 왕은 젊은 붓다에게 예를 다하고 삼귀의를 드리고 우바새 즉 재가사문이 되었다. 빔비사라왕은 죽림정사를 지어 승가의 주처로 삼도록 봉헌하였다. 이제 완벽한 대승가가 성립된 것이다. 당시 종교적으로 널리 승앙을 받던 가섭 형제들이 개종하여 귀의하여 오니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붓다의 제자가 될 것을 청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당시 자체로 거대한 승가를 이루고 있었던 육상외도의 하나인 산자야 교단의 지도자인 목건련과 사리불이다. 이들은 당시 인도 종교계의 천재로 불리어졌던 인물로 널리 알려졌던 사람들이다. 후에 이들은 붓다의 2대 제자로 사리불은 지혜제일, 목건련은 신통제일이 되었다.

이러한 불교 승가의 급속한 발전은 마가다 사회에 많

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다른 사문들의 질시에 의한 비난이 붓다에게 집중된다. 그들은 '산자야 교단마저도 사리불과 목건련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어느 교단에서 누구를 또 빼앗길 것인가' 하고 붓다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젊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출가가 급격히 늘어나자 사람들은 여성이나 노인들에게서 집안의 기둥이 될 남성들을 빼앗아 간다고 비난했다. 때로는 아내가 있는 출가자는 출가에 앞서 양친이나 아내에게 대를 잇기 위해 아이를 갖게 하고 출가를 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청년들도 출가에 앞서 아내를 얻어 아이를 낳고 출가를 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 때문에 출가자가 비구 생활을 계속하면서 남녀간의 교접을 지속하는 경우도 비밀비재하게 되었다. 이에 붓다는 '비구로서 남녀의 교접 행위를 계속하는 자는 아무리 참회를 하더라도 다시 비구가 될 수 없다'는 계율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성의 문제뿐 아니라 대규모의 승가를 이룬 교단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출가자의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의 보편적인 도덕률에서 이탈하는 자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붓다는 출가 생활의 원칙을 정하여 지키도록 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대개 바라문교의 임서기와 유행기의 출가자들의 일반적 생활 규범을 모델로 하여 만든 것이다. 이를 四依法이라 부른다.(佐藤密雄, 1991)

IV. 불교 계율의 모체 : 사의법

비구가 출가하여 승가에 들어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었다. 승가의 규율을 집대성한 경전이 율장이다. 이 율장의 衣穢度에는 출가자가 승가에 들어와 비구가 되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사의법을 먼저 설하여 주게 되어 있었다. 사의법이란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 식, 주와 질병치료에 관한 규율로서 출가자의 생활 지침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사회적인 문제 즉 가계를 이으려는 본능적 욕구와 수도자의 금욕주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율장은 계율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승

가 설립 초기에 왕과 귀족 그리고 부호들이 즉 사회의 지도적 계층이 앞 다투어 불교에 귀의를 얻어 발전하여 갈 때 한 바라문이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그는 신자들이 맛있는 고급 음식과 의복 등을 자발적으로 계속 시주하고 공양하는 것을 보고 배부르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 비구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비구가 된 뒤 불교 출가자들도 걸식을 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고 시주와 공양은 특별한 경우인 것을 알고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었다. 붓다는 이 비구를 크게 꾸짖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비구로 출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수식이 거행되는데 이 식을 하기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비구는 출가자로서 걸식, 분소의, 수하좌, 진기약 등 사의법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한다. 신자의 청식은 모두 예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교육시키게 된 것이다.

현존하는 율장은 붓다의 입멸 후에 제자들에게 의해 집대성된 경전이다. 대가섭은 붓다의 가르침이 그의 입멸 후에도 변치 않고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법의 결집을 서두르게 된다. 왕사성에 500명의 제자가 모여 붓다의 일대설법을 결집하였다 한다. 이 결집을 제1결집이라 부른다. 이 때 교법은 붓다를 항상 가까이 모셨던 아난다가 암송하고 율은 계율에 조예가 깊었던 우팔리가 암송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율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계율의 조문 즉 바라제목차를 해설하고 있는 경분별부이고 두 번째는 상가 운영의 규칙인 갈마를 정리해 놓은 건도부이며 마지막으로는 부수부이다. 이 부수부는 바라제목차와 건도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보유편이다.(평천창, 1989)

이러한 제정의 동기와 과정을 거쳐 형성된 율장 중에서도 사의법은 불교 계율의 모체가 된다. 율장의 대건도에 있는 사의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출가자는 걸식으로 살아가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한다. 승차식, 별청식, 청식, 행주식, 십오일식, 월초일식 등의 예외는 인정한다.
2. 출가자는 분소의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한다. 아마의, 금의, 야잠의, 갈의, 저의 등의 예외는 인정한다.

3. 출가자는 수하좌에 의거하여 살아가야 한다.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한다. 정사, 평복옥, 전루, 누방, 땅굴 등의 예외는 인정한다.
4. 출가자는 진기약에 의하여 살아가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한다. 숙소, 생소, 유, 밀, 당 등의 예외는 인정한다.(佐藤密雄, 1991)

이러한 사의법에서 특이한 점은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교 사상의 중도 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붓다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바라문들의 출가 생활을 따라 사의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는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바라문이 유행기의 육체를 확대하는 고행을 통해 얻으려는 개인의 죽음의 안식과 평온이 진정한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부처는 고통을 통해 세계의 고통 극복하려는 교리의 모순을 직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붓다는 수행에 있어 중용의 도를 주창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번다하게 보이는 사의법의 예외조항들이었다.

수행의 원리에 있어 불교는 극단적인 강경파와 극단적인 온건파를 배격하고 중도파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사의법의 원칙을 지키지만 신자가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하면(청식) 걸식을 하지 않고 청식을 먹어도 좋은 것이다. 이는 신자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는 종교적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몸에 이상이 있어 약을 먹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진기약만을 먹어야 한다. 진기는 부패하여 심하게 냄새나는 소변, 특히 우수라고도 하여 소의 소변을 끓인 것을 말하는데 복통 등에 약효가 크다. 그러나 이 쓰디쓴 진기약이 모든 질병을 낳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붓다는 합리적으로 예외적으로 복용해도 좋은 약들을 병기하여 출가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숙소는 유제품 중 최고의 고급 음료이다. 생소는 생버터이다. 유는 마실 수 있는 기름이고 밀과 당은 꿀과 설탕이다. 이들은 당시에는 최고급의 영양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양제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 한시적으로 엄격한 계율 아래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의 목적과 관계 있는 사항인 승가의 의생활에 대한 계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사의법의 둘째 항목은 출

가자의 의생활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소의만을 입도록 제한하고 있다. 분소의는 다 쓰고 버린 헝겊조각을 모아서 만든 옷이다. 이것이 비구가 입어야 할 본래의 의복이다. 이외에도 율장의 衣縫度에는 시체를 싸서 화장에 내다버린塚間衣를 분소의로 들고 있는데 비구들이 서로 다투어 취하였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어 입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또 비구에게 “분소와 시장에 떨어져 있는 헝겊은 원하는 만큼 갖도록 하라”고 한 기록도 있다. 이는 상점의 문 밖에 버려진 헝겊도 분소의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비구들 중에는 귀족·부호 출신도 많았는데, 그 비구가 주워가기 쉬운 곳에 헝겊을 두고서 주워가도록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후대에 생긴 일이며, 처음에는 출가의 원칙적인 의생활은 분소의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승가의 초기에 붓다가 우루벨라에서 배화교도의 우두머리인 우루벨라 등 가섭 3형제를 설복·교화한 일을 기록하는 가운데 붓다가 분소의를 얻어서 이를 세탁했다는 일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釋帝桓因이 붓다를 위하여 石池와 장소를 마련했다고 한다. 즉 성도 직후 붓다의 옷은 분소의였다는 말이 된다.(佐藤密雄, 1991)

비구의 옷은 三衣이다. 붓다가 비구의 옷을 단 삼의만으로 정한 것과 옷의 재료에 대한 규정의 예외사항으로 보시를 받은 경우에는 비단 옷을 지어도 좋다고 한 전후 사정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소의라고 하더라도 형식만 그럴 뿐 실제로는 새옷에 가까운 것도 그 비율이 상당했던 것 같다. 의견도에 의하면 시체를 화장터에 내버릴 때 비구에게 공양할 목적으로 지은 고급의복으로 덮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파사익왕의 부인이 값비싼 옷을 찢어서 부정한 것을 바른 뒤 특정 비구에게 주었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분소의 대신 시의를 입게 된 것은 상당히 일찍부터 행하여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견도에 의하면, 붓다의 이질을 치료한 의사 기바는 치료를 위해서 붓다의 분소의를 시비포로 바꾸어 드리면서, 비구들도 거사의 옷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었다. 기바의 간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여러 가지 옷, 견의 등을 보시 받게 되었다. 사의법 중 분소의의 예외로서는 아마의·금의·자암의·갈의·저의 등 다섯 가지 옷을 들고 있다. 의견도에는

비구의 옷을 지을 수 있는 천으로서 추마·고패·교사야·홈바라·사니·마포 등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마는 린넨 지방의 마이고, 고패는 면, 교사야는 비단, 홈바라는 양모지, 사니는 야마, 마포는 마인데 각기 이것들은 당시로서는 최고급 의류였다. 그리고 《사분율》에는 삼의라고 하여 열 가지 의류를 헤아리고 있는데, 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佐藤密雄, 1991)

삼의라는 것은 비구의 옷으로는 하의, 상의 및 외의의 삼의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이상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의는 치마 모양의 옷인데, 청소 및 잡무를 할 때는 이것만 입는다. 상의는 하의 위에 입는 옷으로 실내에서 좌선을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입는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나 정장차림을 할 때는 상의, 하의 위에 다시 외의를 착용한다. 삼의 중에 외의는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의를 다 착용하면 전부 네 가지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의견도가 전하는 바로는, 붓다가 바이살리의 고타마묘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밤 동지의, 8일제와 8일제 사이 15일 동안을 노천에 앉아 지내면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의복의 정도를 시험해 보았다 한다. 그리하여 아무리 추운 경우라 하더라도 네겹의 옷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런 까닭에 삼의 이상을 갖고 있으면 장의라고 하였던 것이다. 장의를 열 벌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장의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또 하룻밤 동안이라도 삼의 중 어느 하나를 지니지 않으면 離衣宿戒를 범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모든 비구들은 세가지 옷 즉 삼의만 갖으라고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가사이다. 가사는 원래 불교 발생지인 인도의 복장으로서 열대성 기후인 남방 불교국의 승려들은 이 가사로 사철을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교단이 대정사를 갖게 되자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결식만으로 생활하고 분소의를 입는 것은 산림에 은둔하여 물자를 회사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비구라든가, 혹은 분소의를 입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 같다. 그러한 사람들은 출가행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찬탄되었다. 예컨대, 불멸 후 100년이 지나 제2결집에 인도 전역에서부터 700의 대비구가 모였는데 그들 중 최고위원으로서 또 장로로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결식을 하고 분소의를 입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정사가 있는 승가에서는 신자로부터 옷이나 옷감을 받는 收納 비구, 그 저장을 책임지는 收藏 비구, 창고로 지정된 건물과 그 창고를 지키는 守庫 비구가 있었다. 그리고 옷감을 분배하는 分衣 비구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승가 전체중에서 그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비구로서 선출되었던 것이다.

『慧上菩薩大善權經』에 보면 三衣를 침구로 이용하는데 中衣를 臥具로 하고 大衣는 잘 개어서 베개로 하고 또 小衣는 몸에 붙이고 차기도 했다는 것이다.

삼의는 巴利語로 Ticivara 「三支縛羅」라 한다. 이 삼지전라는 體賤, 色賤, 刀賤의 세 원리에 입각하여 장방형으로 만든다. 이 세가지 천의 원리는 가사를 지을 때 수행자로서 고행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체천은 가사를 만들 때 가장 천한 옷감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즉 분소의를 말하는 것이다.(井筒雅風, 1974) 신자로부터 받은 시의를 사용하게 되면 새로 지은 옷, 화려한 옷이 된다. 그래서 분소의에 가까운 색으로 壞色하여 쓰게 되었다. 비구의 옷을 袈裟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괴색이라는 의미이며 가사로 한다는 것은 천한 색으로 물들이는 것으로 이를 색천이라고 한다. 색천할 때 색의 배합은 율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모란색·니색 또는 천색이었다. 오늘날 남방불교 비구의 옷은 황색인데, 이는 색천의 색 중 천색 계통이 아닐까 한다.(保刈禎子, 1994) 또 분소의는 원래 조각조각 찢어진 천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시의의 경우도 그와 유사하도록 만들어서 착용했다. 긴 형겅과 짧은 형겅으로 잘라서 서로 잇대어 깎는다. 이를 색천에 대하여 도천이라 한다. 즉 도천을 길고 짧은 형겅조각을 계속 잇대어서 조폭을 만들고, 그것을 몇 조각이든 가로로 잇대어 깎는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옷은 조의 수에 따라서 몇 조라고 칭한다. 예컨대 중국·한국·일본에서는 삼의 중에서 하의를 긴 형겅 한 장과 짧은 형겅 한 장을 1조로 하여 다섯 조를 합하여 5조 가사라고 한다.(十誦律 권제27) 마찬가지로 상의는 대개 7조, 외의는 9조에서 25조까지인데, 7조 등의 각 모양은 길고 짧은 장방형의 조각(橫堤, 豎條)을 一長 一短 二長 一短 三長 一短으로 잇대어 장조를 이루고 이 장조를 五條로부터 二十五條까지 사이에 흡수가 해당하는

수를 모아서 장방형 천을 이루는데 각조를 잇는 방법은 중앙조가 양쪽에 이어지는 조가 좌우로 시접이 덮어 박아지면 좌는 좌측으로 우는 우측으로 만들어 간다. 이 도천의 방식은 붓다가 눈에 심어진 비의 정연한 모습을 보고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갠지스강 유역에는 논농사가 발달해 있었으므로 어찌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도천이나 색천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구 본래의 삼의가 분소의였다든 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율장에는 옷감으로서의 가치를 없게 하여 보는 사람들이 盜心을 일으키지 않도록 삼의에 색천과 도천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붓다는 분소의가 내버려진 것이므로 '얻기 쉽다'고 하는 효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분소의거나 시의거나 만족할 줄 알면 된다"고도 하였다.(佐藤密雄, 1991)

V. 율장의 구조와 징계의 종류

앞의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의 율장은 경분별부와 건도부와 부수부의 삼부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사와 직접 관계되는 계율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부는 경분별부의 사타법이다. 이 경분별부는 크게 비구계와 비구니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시 각각의 계율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있는 바라제목차에 따라 여러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남전율장을 살펴보면 비구니계는 1장 바라이법, 2장 승잔법, 3장 부정법, 4장 사타법, 5장 파일제법, 6장 사제사니법, 7장 중학법, 8장 멸쟁법 등의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구니계는 이 8장 중에서 3장 부정법이 빠진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구니 계의 수는 비구 계의 수보다 상당히 많다. 전통적으로 비구 250계, 비구니 500계라고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전율장의 경우에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사에 대한 계율도 비구니 계에 더 많은 조항들이 있다.

이 8개의 장의 구분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계율을 어겼을 때 받게 될 징계의 수준에 따라 분리된 것이다. 첫 번째의 바라이법은 승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으로 승가를 떠나도록 하는 가장 무거운 죄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음행, 도둑질, 살인, 망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의 망어 즉 거짓말은 성도를 이루지

못하고도 성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매우 중대한 대 망어를 뜻한다. 두 번째의 승잔법도 중죄에 해당한다. 비록 승가에서 완전히 추방당하지는 않지만 비구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승가의 정해진 구역진 곳에만 머물 수 있다. 그리고 매일 한번씩 자신의 죄상을 고백하고 벌을 받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승잔법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범하기 쉬운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위를 금하고 여인을 애 무하지 말며, 성희롱을 하지 말고 중대도 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부정법은 앞의 두 중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후에 설명될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의해 벌칙이 부여되므로 부정법이라 부른다. 네 번째 사타법은 의발, 금전, 생활 도구 등을 부정하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한 계율이다. 이들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법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물건을 승가에 내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를 해야 한다. 이 때 참회는 4명의 승가 앞에서 해야 한다. 참회가 끝나면 승가의 결의에 따라 내놓은 물건을 돌려줄 수 있다. 가사에 대한 계율은 이 사타법부터 지정되고 있다. 가사에 관한 계율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벌칙은 중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파일제법은 사타법과 거의 같은 것으로 일상적인 작은 망어를 하거나 식사와 공양의 계율을 어겼거나 하는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3인의 별중 앞에서 참회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계율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내용은 식사와 공양, 거짓말, 음주 그리고 가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다음 여섯 번째 사제사니법은 한 명의 비구 앞에서 죄를 참회하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네 개의 계율 모두 음식에 관한 것이다. 일곱 번째 중학법은 금계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매우 가벼운 계율이다. 이 계율을 어겼을 때는 자신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참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가사를 단정하게 입어라는 계율처럼 일상의 사소한 행동 규범을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계율인 멸쟁법은 일종의 소송 재판에 관한 법으로 바리제목차에는 명목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사제한 운용의 방법에 대한 것은 건도부의 멸쟁건도 항에 상술되어 있다.(평천창, 1960)

VI. 가사에 관한 계율과 징계

이상으로 승가의 질서를 지키고 비구와 비구니의 비행을 막기 위해 제정된 율장에 관하여 남진 율장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가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계율들을 율장의 징계 방법과 수준에 따라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타법의 가사 계율

제1 長衣過限戒 : 기한이 넘도록 여벌의 가사를 소유하지 말아라.

戒相 : 비구는 의시가 끝나고 가회나의를 내다버렸으면 10일 동안은 여벌의 옷을 둘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사타이다.

제2 離三衣宿戒 : 삼의를 떠나서 잡자지 말아라.

戒相 : 비구는 의시나 가회나의를 이외에는 하룻밤이라도 삼의를 떠나면 사타이다. 다만 승가의 허가가 있을 때는 예외이다.

제3 月望衣戒 : 의시를 지나서 까지 옷을 바라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의시를 마치고 가회나의를 내버리고 나서도 비시의(의제)를 얻게 되면 원하는 비구는 받아도 좋다. 받고 나면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제4 使非親尼浣故衣戒 :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지 말아라.

戒相 : 비구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속옷(故衣)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두들기게 하며는 사타이다.

제5 取非親尼衣戒 :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얻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받으면 사타이다. 그러나 교환을 하면 예외이다.

제6 從非親俗人乞衣戒 : 친척이 아닌 속인에게 옷을 달라고 하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타이다. 특별한 사정이란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을 때를 말한다.

제7 過分取衣戒 : 지나치게 옷을 많이 받지 말아라.

戒相 : 비구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 부인이 많은 옷을 바치면서 마음대로 가지라고 하여도 내,외의 옷만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타이다.

제8 勸增衣價戒 : 옷값을 더 올려서 옷을 짓도록 권하지 말아라.

戒相 : 친척이 아닌 거사나 그의 부인이 옷값을 준비하고 옷을 사서 비구에게 보시하려 할 때 비구가 먼저 이리이러한 옷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 사타이다.

제9 勸二家增衣價戒 : 두 신도의 돈을 합하여 한 벌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권하지 말아라.

戒相 : 두 거사나 그 부인이 각기 옷값을 준비하여 그 옷값으로 각자가 옷을 사서 비구에게 보시하려 할 때 비구가 미리 각자가 준비한 옷값을 합하여 공동으로 한 벌의 고가의 옷을 사서 보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면 사타이다.

제10 過限忽索衣價戒 : 기한을 지나서 급히 옷을 찾지 말아라.

戒相 : 비구는 왕, 대신, 바라문, 거사 등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옷값을 보내어 받기를 청할 때 의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 때 심부름꾼이 옷값을 집사에게 맡기고 갈 수 있다. 의시가 되어서 비구가 집사에게 가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옷값을 받으면 좋다. 이 일은 세 번까지 할 수 있다. 만일 집사가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세 번까지 찾아가서 옷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말을 할 수 없으며 침묵을 지키면서 집사가 기억해주길 기다려야 한다. 이 때에도 집사가 옷값을 주지 않으면 옷값을 보내준 곳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집사에게서 옷값을 찾아가게 해야 한다.

제11 乞蠶綿作袈裟戒 : 명주 베로 가사를 만들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잡종 야잠 면으로 가사를 지으면 사타이다.

제24 過前求雨衣過前用戒 : 우중에 목욕하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기한 전에 미리 사용하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봄이 끝나기 한달 전에 비를 때 목욕을 하기 이해 입을 옷을 구하거나 반 달이 되기 전에 입게 되면 사타이다.

제25 奪衣戒 : 주었던 옷을 다시 빼앗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뒤에 화를 내어 스스로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면 사타이다.

제26 自乞縷使非親織戒 : 스스로 실을 얻어서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옷을 짜게 하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스스로 실을 얻어서 직물사에게 옷을 짜게 하면 사타이다.

제27 勸織師增衣縷戒 : 자기 옷을 짜는 직물사에게 실을 많이 주라고 신도에게 권하지 말아라.

戒相 : 비구를 위하여 친척이 아닌 신도가 직사에게 옷을 짜도록 하였을 때 비구가 직사에게 가서 자신의 옷을 더 좋게 짜도록 돈이나 물건을 주어 부탁하면 사타이다.

제28 過前受急施衣過後蓄戒 : 기한 전에 급시의를 받거나 의사가 지나도록 두지 말아라.

戒相 : 만약 비구가 여름 안거의 해제일이 십일이 남아 있는데 급시의를 있으면 마땅히 받아 의사가 될 때까지 둘 수 있다. 십일 이상이 남아 있는데도 급시의를 받으면 사타이다.

제29 有難蘭若離衣戒 : 위험한 아란야에서는 삼의를 여의고 잘 수 있으나 6일을 지나지 말아라.

戒相 : 만약 비구가 안거를 마치고 8월 15일에 이르러 험난하거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머물게 될 때에는 삼의 주에 하나를 민가에게 맡기어도 좋다. 그러나 6일 동안은 좋으나 그 기일을 넘기면 사타이다.(李智冠, 1977)

② 파일제법의 가사 계율

제25 與非親尼衣戒 :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면 파일제이다. 다만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26 與非親尼作衣戒 :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주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위하여 옷을 지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파일제이다.

제58 著新衣戒 : 새옷을 입지 말아라.

戒相 : 새옷을 얻은 비구는 청색, 니색, 흑갈색의 세 종류의 괴색 중 하나만을 취해야 한다. 만약 이 중 하나가 아닌 새옷을 입으면 파일제이다.

제59 眞實淨不語取戒 : 자기 스스로 정시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아니하고 가져다 입지 말아라.

戒相 : 비구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등에게 가사를 맡길 때에는 정시한다고 말하고 맡겨 놓는다. 다시 찾을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청하고 승낙을 받고 입어야 한다.

제82 廻與僧物戒 : 승물을 개인에게 주지 말아라.

戒相 : 비구는 승가에게 기증된 물건인줄 알면서 개인에게 주면 파일제이다.

제91 過量雨浴衣戒 : 우욕의를 만들 때 규격을 넘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우욕의를 만들 때는 규격을 지켜야 한다. 길이는 불수적으로 6수척이고 폭은 2수척이다. 이를 넘으면 파일제이다. 잘라내야 한다.

제92 與佛等量作衣戒 : 붓다의 가사와 동등한 규격으로 옷을 만들지 말아라.

戒相 : 비구가 붓다의 가사의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크기로 옷을 지어 입으면 파일제이다. 절단해 내야 한다. 붓다의 가사의 규격은 불수적으로 길이 9척, 너비 6수척이다.(佐藤密雄, 1991)

③ 중학법의 가사 계율

제1 齊整涅槃僧戒 :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제2 齊整著三衣戒 : 삼의를 단정하게 입어라.

제3 覆身戒 : 몸을 단정하게 가사로 덮어라.

제4 覆身坐戒 : 몸을 단정하게 가사로 덮고 앉아라.

제5 正威儀戒 : 위의를 단정히 하라.

제6 正威儀坐戒 : 위의를 단정하게 하고 앉아라.

제9 反抄衣戒 : 옷을 걷어 부치고 속가에 가지 말아라.

제10 反抄衣坐戒 : 옷을 걷어 부치고 앉지 말아라. (佐藤密雄, 1991.)

Ⅶ. 가사 계율의 종합화와 해석

위의 가사에 대한 계율은 율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율장의 체계는 징벌의 경중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어 가사에 연관된 계율들이 여러 징벌의 단위들 속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다. 이제 가사와 관련된 계율들을 서로 연관된 사항 별로 묶어 범주화하여

실제 인도 초기 불교에 있어 가사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에 관한 계율의 실상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해 보기로 한다.

울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울장 제정 당시 승려들이 가사를 초기 원시 불교 시기처럼 직접 분소의재로 만들어 입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승가의 제도가 정착되고 승려들의 수도와 포교의 생활이 규칙화되면서 승려의 가사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기 보다는 타인이 보시하여 주는 일이 더욱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衣時의 개념이 가사에 대한 계율의 제일 앞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사타법 제1조와 제3조는 가사의 여벌의 소유 기간과 가사 재료를 얻어 보관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주 조문에는 모범이 되는 의시 이외에는 가사나 그 재료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의시란 우기 안거 즉 4월 16일에서 7월 15일과 후안거 즉 5월 16일에서 8월 15일까지의 두 안거일 이후 한 달 동안을 말한다. 이 한 달 동안 비구는 승가로부터 의재를 받거나 신도로부터 시의를 받아 삼의를 준비하여 다음 안거 때까지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도심이 깊고 수행에 있어 정진하여 탁월한 진전을 보인 승려에게는 특별히 승가에서 삼의를 마련하여 주는데 이 삼의 즉 가사를 가회나이라 부른다. 가회나의 기간은 일반적인 의시보다는 길다. 즉 전안거 기간이 끝나 7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5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일종의 도가 높은 비구에 대한 특전이라 할 수 있다. 의시와 가회나의시라는 기간은 포교 여행을 다니는 기간과 연관된 시한으로 안거 동안 입고 지냈던 삼의 이외의 여벌의 가사를 얻어 입을 수 있는 시한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 기간 즉 포교 여행 기간이 끝나 다시 안거에 들 때에는 여벌의 옷이나 의재를 다 버리고 단삼의만을 소유하고 입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사타법의 제2조인 것이다. 의시나 가회나의시 이외에는 오직 단삼의만을 지니고 입고 살아야 한다는 이 조항은 불교의 무소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변할 수 없는 철칙인 것이다. 이 의시의 규정에서 우리는 비구의 일년 동안의 활동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비구는 안거의

수행 기간과 포교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인 의시기간과 포교 활동 기간의 삼분화된 생활 규범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 의시와 관련된 또 다른 세 개의 조항이 사타법에 첨가되어 있다. 10조는 비구가 가사를 새로 얻기 위해 옷값을 의시를 지나서 스스로 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는 신도가 시주한 옷값보다 많은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9조는 옷값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두 신도가 시주한 돈을 합하여 옷을 만드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번뇌와 망상 즉 모든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함으로 욕망의 무화를 지향하며 실제에 있어 욕구의 최소화를 실천하려는 불교의 생활 철학의 한 실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제7조의 지나치게 많은 옷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돈이 아닌 실을 스스로 구해서 직조공에게 가사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고 나아가 더 화려하고 질 좋은 가사를 얻기 위해 신도에게 직조공에게 더 많은 양의 새 실을 주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26조와 27조의 규정에서도 그와 같은 정신은 잘 나타나 있다.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우리의 자아는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이 곧 참다운 자아 즉 자아를 죽이고 무아가 됨으로 열반에 든다는 석존의 가르침은 실제 인간에게는 실천이 불가능한 것인 지도 모른다.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무의식적인 것이라 할 정도로 억제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에서는 사타법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자세하고 치밀하게 가사에 대한 계율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파일 제법에서 다시 가사에 대한 여러 계율을 정해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새 옷을 입지 말아라는 제58조이다. 이는 울장이 제정되던 시대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의시가 되면 새 가사를 보시 받을 수 있다는 앞서의 사타법의 계율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 조항의 계상에는 비록 새 옷을 입되 색체에 제한을 두어 정신적인 가치를 실천하게 하려 한다. 즉 불교 초기의 붓다 자신에 의해 지정된 분소의의 괴색으로 새 가사를 염색하여 입음으로 수행자의 무소유의 삶의 정신을 지켜나가기를 가르

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92조는 가사의 크기 즉 규격에 대해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입을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계상에 지적된 것은 붓다의 가사의 크기를 넘을 경우에는 잘라내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크기는 불수적으로 길이는 9수척이고 너비는 5수척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색천의 정신을 지키는 것과는 달리 실천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승려의 체형에 따라 가사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도 실제적 규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크고 여유 있는 가사를 걸치고 권위 의식이나 종교적 또는 인격적 우월감을 가질지 모르는 수행자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 대한 유혹을 끊기 위하여 제정하고 지키려 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규격을 넘는 부분은 과감히 절단하라는 추상같은 명령 속에 청빈과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숭고한 불교적 정신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무의식적 욕구에 해당하는 복식에 대한 욕망의 절제를 위한 규정은 율장의 계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VIII. 결 론

본고는 율장 특히 남전 율장에 나타나 있는 가사와 연관된 계율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불교에 있어 가사의 정신적 의미와 그 상징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바라문교 수행자의 입서기의 복식이 불교 가사의 원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외도와 불교를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田文相의 조각 옷으로 가사를 지어 입게 하고 있다. 이 일이 가사에 대한 최초의 계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 무아와 무욕의 사상을 잘 나타내는 계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붓다의 가사에 대한 계율의 정신을 이어 받아 불멸 후 1세기 후에 율장이 제정된다. 이 율장은 부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는다. 율장에 정착된 가사에 관한 계율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해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승려가 직접 가사를 제작하여 입을 수 없는 시대가 오자 승단은 가사의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삼의 외의 여분의 가사를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시로 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둘째는 승려가 가사를

보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친척으로 한정하여 복식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의 발현을 통제하였다.

셋째는 가사를 직접 보시하지 못하고 금전으로 보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싼 값의 가사를 바랄지도 모르는 욕심을 억누르도록 하였다. 넷째로는 보시 받는 가사는 새 옷일 수밖에 없다. 새 옷은 분소의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의 색은 괴색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가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장엄하고 권위를 나타내는 가사에 대한 욕구를 차단하고 있다. 여섯째로는 가사를 착용하는 자 세에 대하여 세세히 규정하여 수행에 정진하는 수도승의 아름다운 행동양식을 잘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붓다 생존시의 불교 수행자의 일반적인 모습은 분소의를 걸치고 저자에 나가 걸식을 하였다. 버려진 형질 조각을 기워 만든 옷을 입고 주객일여, 생사불이, 유무상통의 우주 및 존재의 비밀을 깨우치기 위해 형형한 눈빛으로 내면의 무명을 응시하는 선경에 몰입하였다. 일반인들은 그들의 무욕과 청빈함에 경이를 느끼고 존경하였으며 신심을 키워갔다. 그러나 후대에 갈수록 교단은 팽창하고 확대되어 가면서 붓다는 신격화되며 승려는 귀족화 되어 갔다. 신도는 돈과 음식과 가사 등과 같은 수행자의 생활 용품들을 시주하며 자신의 신앙심의 크기와 깊이를 나타내려 하게 된다. 가사는 수행자와 수행자 그리고 수행자와 신도 사이의 중요한 만남의 계기체이다. 인간 관계에 물질이 개입하면 할수록 자만과 교만이 짝하게 된다. 자만과 교만은 우리의 자아가 무아의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가사가 화려해지고 값이 비싸지고 장엄한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승려와 신도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과 자금을 키워간다. 분소의가 지녔던 청정심과 무심 그리고 평상심의 위대한 의미는 사라지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더러운 상징의 도구로 전락해 간 것이다. 붓다는 열반에 들면서 '나는 평생 한 마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절대적인 자기 부정을 선언하였다. 무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최후의 순간에까지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려는 자비심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자신을 결코 신격화하지 마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붓다는 혜안으로 후대에 있을 불교의 세속화의 위험을 가사에 대한 계율을 자신의 입으로 정하여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런 붓다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승단의 자기억제 즉 본능의 제약으로 율장의 계율들이 정해진 것이다. 본소의 가사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인의 의식을 정화하는 데 있어 귀중한 청정수가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1999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문헌

1. 金富植, 三國史記.
2. 釋 一然, 三國遺事.
3. 李智冠(1976). 南北傳六部律藏比較研究, 大覺會出版部, 서울.
4. -----(1977). 比丘尼戒律研究, 大覺會出版部, 서울.
5. 崔完洙(1973). 간다라 佛衣考, 불교미술, 동국대학교 박물관, 제1집.
6. 박일록(1984). 가사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불교학회, 제9집.
7. -----(1990). 가사의 재료와 구성의 연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柳炳德박사華甲紀念).
8. 吉熙星(1984). 印度哲學史, 민음사, 서울.
9. 井筒雅風(1974). 法衣史, 雄山閣, 東京.
10. 平川彰(1989). 印度佛教史, 이호근역, 민족사, 서울.
11. -----(1960). 律藏의 研究, 春秋社, 東京.
12. 左藤密雄(1991). 佛教教團 成立과 展開, 김호성역, 민족사, 서울.
13. 南傳大藏經, 第3卷 律 3藏
14. 保刈禎子(1994). 우아한 袈裟의 이야기, 近代文藝社, 東京.
15. Bloomfield, M.(1988). The Religion of the Veda, New York.
16. de Bary, W.T. ed.(1958). Sources of Indian Tradition, New York.
17. Hopkins, T.J.(1971). The Hindu Religious Tradition, California.
18. Deussen, P.(1968). The Philosophy of the Upanishads, tr. by A.S. Geden, London.
19. Conze, E.(1953).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2nd ed., Oxford.
20. Davids, T. W.(1976). Buddhism, its History and Literature, 2nd, ed., London.
21. Max Muller. ed.(1966). Dialogue of Buddha, part I, Sacred Books of The East, Vol.2, N.Y.
22. Pande, G. C.(1957). Studies in the Origins of Buddhism, Allahabad.